

# 퇴계학의 오독 : 다카하시 도루와 아베 요시오의 퇴계론 비판

朴均燮\*

## 차례

1. 문제제기
2. 다카하시 도루의 유학연구와 퇴계론의 수준
3. 아베 요시오의 퇴계사상 일본전파론과 퇴계학의 굴절
4. 해방이후 퇴계학 연구의 전문성 점검
  - 4.1. 퇴계학의 일본전파론 극복 문제
  - 4.2. 전쟁인문학으로서의 퇴계학의 탈각 문제
5. 맺음말

## 국문초록

일본의 관제·관변학자로서 퇴계 연구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두 인물로 다카하시 도루와 아베 요시오를 들 수 있다. 이들이 퇴계를 주목한 것은 조선의 청년·학도에게 퇴계를 매개로 삼아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황국신민의 도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의 퇴계 연구물은 해방이후의 한국유교·퇴계학 연구자들에게 무비판적으로 흡수되었다. 조선시대 이래의 퇴계 관련 구전설화는 퇴계를 문화상품의 주인공으로 삼는 상업인문학의 소재로 활용되었고, 일제강점기의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퇴계 연구는 퇴계를 내선일체론과 식민교육의 근거로 내세워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쟁과 죽음의 대열로 내몰기 위한 전쟁인문학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이는 해방이후의 한국유교 연구 과정에서 퇴계학의 정체성을 혼드는 요인이기도 했다. 상업인문학에 의해 오염되고 전쟁인문학에 의해 굴절된 퇴계학이 본연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설화적 미몽과 식민적 잔영을 걷어내는 가운데 퇴계학 연구의 지적 토대와 연구 역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제어

다카하시 도루, 아베 요시오, 퇴계학, 상업인문학, 전쟁인문학

## 1. 문제제기

메이지시대 이래 일본의 교학성지(1879)—군인칙유(1882)—교육칙어(1890)로 이어지는 제국주의·군국주의 교육체제는 군대와 교육의 일치주의(兵學一如, 軍敎一致)를 교육노선으로 내걸었다. 교육칙어체제의 사상적 특징은 신도경전/신도학의 세계가 잘 정리·반영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칙어에 대해 일본식 충효론을 제일 덕목으로 하는 유교적 가르침의 표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는 자들이 많았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교육칙어의 원천에 퇴계사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도 오랜 기간 유통되어왔다. 에도시대 이래의 일본사상사에서 퇴계에 대해 보인 관심은 개별 학자들이 퇴계의 『자성록』이나 『주자서절요』 등을 읽으면서 수양공부에 임하는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1897년(대한제국 원년/메이지 30) 무렵을 고비로 퇴계에 대한 설명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퇴계철학·사상은 메이지 이데올로기와 결부되고 일본

의 도의국가 담론에 포섭되었다.<sup>1)</sup>

한국근현대사상사 장면에서 퇴계학은 일본의 관제·관변학자들에 의해 호평 속에 강조되었고, 해방이후의 퇴계학은 일제강점기의 퇴계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계승하는 성격을 질게 띤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전쟁으로 가는 길목에서 퇴계학의 본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퇴계를 앞장세워 저비용-고효율의 식민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계학이 연구되었다. 군국주의 일본의 철학적 기초는 도의철학에 있었고 이는 황도유학의 본령이기도 했다. 퇴계에 대한 논의야말로 교육척어체제를 통한 도의입국-문교보국의 과업을 수행하는 일이기도 했다.

군국주의 일본의 행보와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탈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퇴계 연구는 1930-40년대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전쟁인문학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해방이후에도 그 성격에 큰 변함이 없었다. 아쉽게도 해방 이후의 퇴계학은 해방이전의 퇴계학을 비판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 도의국가·국민도의 담론이라는 프레임의 원천은 일제강점기의 식민교육에 있다는 점에서, 그 주장과 선포가 1930-40년대의 전쟁인문학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악의 뿌리에 바탕을 둔 독수독과로서의 도의담론이었음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주도의 퇴계를 존승하는 입장, 퇴계학의 위상을 구축하는 입장을 가상하게 여기다보니 우리는 그들의 구호, 선린우호와 평화애호에 매료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는 퇴계학의 본연에 다가서는 모습이 아니라 퇴계를 식민교육의 방편

1) 박근섭, 「교육척어체제의 지속과 한국교육의 실패」, 『일본학보』 51, 2002, 439-454쪽; 柳生眞, 「日本における退溪・栗谷・茶山研究の流れ: 日本における韓國儒學言説を再検討する」, 『退溪學論集』 10, 2012, 278-305쪽.

으로 삼았던 불순한 의도에 말려드는 형국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해방 이후의 한국사상·퇴계학 연구는 일본적·식민적 굴절을 교정하지 못한 채 퇴계학이라는 업적과 성과를 산출해왔고, 그러면서도 이를 주체성 교육과 국민정신 교육을 표방하는 소재로 삼아왔다는 사실은 한국교육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본고는 다카하시 도루와 아베 요시오를 중심으로 퇴계철학·사상의 일본전파론과 선린우호와 평화애호의 도의담론에 개입된 악의 뿌리, 그 독수독과의 본질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퇴계학 연구 성과와는 별개로 접근·대응하는 방식의 연구이다. 한국 철학계 및 교육학계의 퇴계학 연구는 대체로 한국 근대교육=식민교육 장면에서 그치지 않는 채 조선시대의 퇴계에 대한 논의연구를 한국 현대사회의 장면에 입각하여 논의연구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굴절·왜곡·질곡이 가장 심하게 가해진 식민시대=단층을 간과했다는 무거운 한계가 드러난다. 이에 대한 성찰과 논의를 심층 깊게 가져갈 때, 퇴계학의 지향에 묻어나는 식민적 굴절·왜곡·질곡의 궤적을 제대로 들춰내는 작업을 통해 향후 퇴계학의 본연과 정통을 확립하는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다카하시 도루의 유학연구와 퇴계론의 수준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1878~1967]는 1904년 말에 대한제국 초청으로 한성중학교(현재 경기고등학교) 교사로 내한하였고, 경술국치일(1910. 8.29)의 다음 달인 1910년 9월에 『조선이야기집 및 속담』(朝鮮の物語集附

俚諺)을 간행하였다. 1914년 6월에는 위의 책에 대한 증보판으로 『조선의 속담집 및 이야기』(朝鮮の俚諺集附物語)를 펴냈다. 다카하시 도루는 1916년에 개교한 대구고등보통학교(현재 경북고등학교) 교장에 부임하였다.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인의 민족성에 관한 단행본 『조선인』은 1920년 12월 총독부에서 간행되었다.<sup>2)</sup> 다카하시 도루는 1926년의 경성제국대학 개교 당시에 5인의 주요 멤버로 참여하였다[總長: 服部宇之吉博士, 獎學部長: 志賀潔博士, 法文學部長事務取扱: 安倍能成氏, 豫科部長: 小田省吾氏, 學生監: 高橋亨博士].<sup>3)</sup> 다카하시 도루는 법문학부 교수로 임명되어 조선어 문학 제1강좌(조선유학사)를 담당하여 일체에 순응하고 협력하는 이른바 식민지 지식인을 양성하는데 앞장섰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카하시

2) 다카하시 도루가 일찍이 일선동조 이데올로기의 대열에 참여·합류하지 않은 것은 그간의 그의 조선인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金廣植, 「高橋亨の『朝鮮の物語集』における朝鮮人論に關する研究」, 『學校教育學研究論集』 24, 2011, 18, 22-23쪽).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인론(『조선인』, 조선총독부 학무국, 1920년 12월)에서는 10가지 성격(1. 사상의 고착, 2. 사상의 종속, 3. 형식주의, 4. 당파심, 5. 문약, 6. 심미관념의 결핍, 7. 공과 사의 무분별[公私混淆], 8. 관용[寬雍]-위엄[鷹揚], 9. 순종[從順], 10. 낙천적)을 제시하였다(高橋亨, 『朝鮮人』, 京城: 朝鮮總督府學務局, 1920, 구인모 역,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33-162쪽). 다카하시 도루가 식민교육의 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히 “공과 사의 무분별[公私混淆]”을 문제삼은 것은 주의를 요한다. 공과 사의 무분별을 문제 삼은 것은 향후 멸사봉공의 정신무장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高橋亨, 「吾人は學生に斯く希望す」, 『文教の朝鮮(京城帝國大學開學記念號)』 1926년 6월號, 21-22쪽). 단적인 예로 다카하시 도루는 충과 효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한국인의 가치관을 문제 삼았고, 충과 효를 하나의 뿌리로 여기면서 충을 앞세우는 일본식 충효론을 높이 평가하였다. 다카하시 도루가 일본의 국체를 설명하면서 君國一體, 忠孝一本, 君民一家를 표방했던 데서도 그의 의식의 저변을 관독할 수 있다(高橋亨, 「序」, 喜田新六·高橋亨, 『國體明鑑』, 京城: 朝鮮儒道聯合會, 1944, 8쪽).

3) 朝鮮總督府學務局內朝鮮教育會, 「口繪: 京城帝國大學總長及幹部(寫眞版)」, 『文教の朝鮮(京城帝國大學開學記念號)』 1926년 6월號, xxii쪽 참조.

도루의 글쓰기는 조선총독부의 정책 수행을 강력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카하시 도루는 진화론의 우등과 열등 이론을 적용하여 조선과 조선인을 자의적으로 폄훼하였다. 다카하시 도루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주리주기론을 식민철학으로 주조해냈다. 다카하시 도루의 식민철학은 조선인의 열등성을 유포하면서 조선인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지우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했다.<sup>4)</sup>

다카하시 도루는 1939년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정년퇴임하고 1940년에는 혜화전문학교 교장이 되어 불교교육에도 관여하였다. 다카하시 도루는 1944년에는 경학원 제학 겸 명륜연성소 소장과 조선유도연합회 부회장이 되어 일제말기까지 식민지교육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다카하시 도루는 1950년 나라현 덴리시의 덴리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그의 조선인론과 조선학을 계속 유포하였다.

다카하시 도루의 초기 유학연구에서는 사단칠정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고 퇴계에 대해서도 크게 다루지 않았다(중립 또는 무관심). 율곡을 퇴계보다 우위에 두는 다카하시 도루의 입장은 1915년의 지상논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카하시 도루가 율곡을 높이 평가한 것은 실천 중시의 철학이 유행했던 메이지유학계의 동향과 관계가 있다고

4) 高橋亨, 『朝鮮人』, 京城: 朝鮮總督府學務局, 1920, 구인모 역,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33-162쪽; 高橋亨, 『王道儒道より皇道儒道へ』, 『朝鮮』 295, 1939, 10-28쪽. 다카하시 도루는 진화론의 우등과 열등 이론을 적용하여 우월한 일본인의 입장에서 열등한 조선인을 폄훼하였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욕망은 다카하시 도루, 아베 요시오, 박종홍이 교수(다카하시 도루, 아베 요시오)와 학생(박종홍) 신분으로 몸담았던 경성제국대학의 교육·연구 과정에도 짙은 궤적을 남겼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욕망은 경성제국대학 총장의 시무식 훈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服部宇之吉, 『京城帝國大學始業式に於ける總長訓辭』, 『文教の朝鮮(京城帝國大學開學記念号)』 1926年 6月號, 3-7쪽.

말할 수 있다.<sup>5)</sup> 다카하시 도루는 순수학자인 퇴계보다 경세제민의 견식을 겸비하여 소위 시무를 중시했던 율곡을 진정한 유교 지식인·학자라고 생각했다. 이는 다카하시 도루의 유교 지식인·학자에 대한 분류법에 잘 드러나 있다.<sup>6)</sup> 다카하시 도루는 율곡이 유교의 수양적 방면과 실용적 방면을 함께 발휘하고 중국에는 도학선생의 범주에 빠지지 아니 하였음을 들어 그를 진정한 유교 지식인·학자라고 높이 평가하였다.<sup>7)</sup> 반면 다카하시 도루는 퇴계에 대해서는 율곡과 같은 수양과 실용의 지점에 올라서지 못했다면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기도 했다.<sup>8)</sup> 다카하시 도루가 이처럼 율곡을 두둔하는 성격의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당시 강연의 성격상 노론(율곡학과)의 인물 경학원 제학 운양 김윤식[雲養 金允植, 1835~1922]의 자작수상축하회라는 점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sup>9)</sup>

5) 李曉辰, 高橋亨の韓国學研究: 儒學・仏教・文學研究を中心に, 『退溪學論集』 12, 2013, 168-169쪽.

6) 장지연-다카하시 도루 사이의 지상논쟁에는 유교 지식인·학자에 대한 분류법이 잘 드러나 있다. 논쟁에서 장지연은 “유자는 학자의 대명사[儒者即學者之代名詞]”이며 “유는 학자를 지칭한다[儒學者之稱]”는 점을 들어 유교 지식인·학자를 儒者-儒學者로 구분하는 일은 억지나 다름없다고 보았다. 반면 다카하시 도루는 儒者-儒學者-道學者-道學先生-道學 등의 문자는 메이지시대 학계에서 새로이 안출된 개념으로 중국의 용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毎日申報』 1918년 5월 18일, 6월 3일; 李曉辰, 『高橋亨の韓国學研究: 儒學・仏教・文學研究を中心に』, 『退溪學論集』 12, 2013, 166-167쪽에서 재인용). 다카하시 도루의 분류법에 의하면 유교 지식인·학자의 대명사는 儒者이며, 儒學者는 상정되어있지 않다. 1940년대 중반의 국민교육론을 언급한 “근세 국민교육은 神道家, 國學者, 儒者, 佛敎家, 心學者 등의 활동에 의한 것이 많다”는 지적에서도 儒學者에 내줄 공간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喜田新六・高橋亨, 『國體明鑑』, 京城: 朝鮮儒道聯合會, 1944, 242쪽.

7) 高橋亨, 『經學史上の雲養集』, 『毎日申報』 1915년 5월 18일.

8) 高橋亨, 『經學史上の雲養集』, 『毎日申報』 1915년 5월 18일; 李曉辰, 『高橋亨の韓国學研究: 儒學・仏教・文學研究を中心に』, 『退溪學論集』 12, 2013, 166쪽에서 재인용.

9) 李曉辰, 『高橋亨の韓国學研究: 儒學・仏教・文學研究を中心に』, 『退溪學論集』 12, 2013,

보다 근본적으로는 율곡사상이 퇴계사상보다 중시되었던 기류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한 예로 당시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정책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향약을 적극 이용했을 때에 그 방법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면서 율곡향약을 주로 참조하였고 퇴계향약은 부분적으로 참작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10)</sup> 이는 다카하시 도루가 이기론 프레임을 통해 율곡과 퇴계를 바라보는 특징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카하시 도루의 세계관과 일본적 무의식이 짙게 작동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카하시 도루가 조선인의 열등성을 포착하여 제시한 것이 이기론 프레임으로서의 주리주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카하시 도루의 이분법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심층과 역동성을 대립상으로 표상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주리주기론은 학문적·유형적 분석과 천착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카하시 도루의 주리주기론은 그리 탁월한 주장도 아닌데다가 만고의 이론체계를 제시한 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그가 제시한 절충과라는 개념도 철학사상에 대한 분석과 고민을 그만 두겠다는 태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철학계 및 교육학계는 그에 대해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해왔다.<sup>11)</sup>

다카하시 도루의 이분법을 지적하자면, 조선시대 성리학의 유형은 그의 구분처럼 2개 정도로 낙착되지 않고, 적어도 6~7개의 역동성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주기-주리의 학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

167쪽.

10) 한미라, 「일제의 식민정책과 향약 인식 : 192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9, 2015, 59-86쪽.

11) 한형조, 「주기 개념의 딜레마, 그리고 실학과의 불화」, 『다산학』 18, 2011, 307-335쪽.

기의 계열(기, 기학)보다 이의 계열(이, 이학)을 최고의 근원이자 가치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주리뿐만이 아니라 주기도 어디까지나 이학의 한 갈래일 뿐이다. 그럼에도 주리설은 전통적 윤리 질서와 연결됨으로써 대체로 강력한 체제 옹호 내지 복고적 사회관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거나 이에 비해 주기설은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해 열려 있는 사회관·역사관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견해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주기 계열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이학에 터를 잡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고, 그저 기에 대해 현실(생리적 욕구, 신체의 욕망, 실용적 적용)을 존중하고 거기에 적응하려는 경향으로 읽은 데서 이러한 큰 오해가 생겼다.<sup>12)</sup> 다카하시 도루의 이분법에서는 현실을 존중하는 학문적 입장이 율곡=유자론, 퇴계=유학자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기론에 대한 오독을 양산해왔고, 이는 아직도 다카하시 도루를 디딤돌로 삼아온 한국철학·교육학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 재생산되는 경향이 짙다.

초기 유학연구에서 퇴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다카하시 도루는 1920년대에는 오히려 퇴계를 비판하는 입장을 드러냈다.<sup>13)</sup> 다카하시 도루는 <조선유학대관>(1927년의 『조선사강좌』에 실림)에서 퇴계 사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비판하였다. 퇴계는 침잠·사색·연찬의 제일학자이며, 그에 의해 조선의 유학은 주자학파로 귀일되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조선의 학계는 단일평판의 성격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12) 위의 글.

13) 李曉辰, 「高橋亨の韓国學研究：儒學・仏教・文學研究を中心に」, 『退溪學論集』 12, 2013, 170쪽.

고 보았다. 다카하시 도루는 퇴계의 학문은 전조선인의 학문방향을 창의적·발명적 사고를 빈약하게 만들고 주자학을 무비판적으로 계승·조술하는 입장으로 규율했다는 주장이다. 다카하시 도루는 이를 일본의 유교 지식인·학자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나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가 보였던 호걸다운 면모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장면으로 인식하였다.<sup>14)</sup>

다카하시 도루는 율곡에 관해서는 늘 높이 평가하였는데 반해 퇴계에 대한 평가는 시기에 따라 중립(무관심)→비판→칭찬으로 변화하였다.<sup>15)</sup> 우선은 다카하시 도루가 1939년부터 1940년에 걸쳐 『사문』에 발표한 퇴계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6)</sup> 거기에서는 다카하시 도루의 퇴계에 대한 평가가 지금까지와는 크게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유학을 연구하여 퇴계에 이르러 처음으로 “학문도덕을 겸비한 위대한 유학자[學問道德兼備の偉大なる儒學者]”를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퇴계집』을 얻어 이를 시작으로 숭배하기에 충분한 고도수준에 달한 조선의 문헌에 접하는 환희에 빠짐을 깨닫는다[李退溪集を得て此に始めて崇拜するに足る高度の水準に達せる朝鮮の文献に接する歡喜に浸るを覚える]”고 하였다.<sup>17)</sup>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식민교육 이데올로기의 구성 과정에서 퇴계와 교육적어의 연계론을 회피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4) 위의 글, 169쪽.

15) 위의 글, 170-172쪽

16) 高橋亨, 「李退溪」, 『斯文』 21(11), 1939, 1-32쪽; 高橋亨, 「李退溪(二)」, 『斯文』 21(12), 1939, 12-22쪽; 高橋亨, 「李退溪(三)」, 『斯文』 22(1), 1940, 34-43쪽; 高橋亨, 「李退溪(四)」, 『斯文』 22(2), 1940, 6-19쪽; 高橋亨, 「李退溪(五)」, 『斯文』 22(3), 1940, 7-27쪽.

17) 高橋亨, 「李退溪」, 『斯文』 21(11), 1939, 1쪽.

다카하시 도루의 1939-40년의 퇴계론은 『사문』에 총 5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5회의 연재물 중에서 퇴계론이 교육칙어를 통한 식민교육을 구도로 삼았음을 증명하는 장면으로 두 번째로 실린 퇴계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문』 21(12)에는 메이지천황의 성덕홍업을 받드는 글(鹽谷溫, 1-11)—다카하시 도루의 퇴계론(高橋亨, 12-22)—교육칙어 반포 당시의 상황(岡井愼吾, 23-25) 등의 순서로 글이 배치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권말에는 퇴계의 학덕을 경모했던 인물이자 후일 그의 학통이 모토다 나가자네에게 전수되었다는 오즈카 다이노에 대한 기념행사[大塚先儒祭] 관련 기사도 실려 있다.<sup>18)</sup> 오즈카 다이노에 대한 기념행사에서는 유교사상이 오진천황[應神天皇] 때에 박사왕인에 의해 일본에 전승된 이래 2천수백년의 융화와 일본 국민사상의 근본을 이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식민교육 이데올로기의 구성작업에서 박사왕인과 퇴계가 주로 소환·호명되면서 추후 퇴계는 제2의 왕인이라는 위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sup>19)</sup> 다카하시 도루의 세 번째 퇴계론이 실린 『사문』 22(1)의 표지에는 아예 “황기 2600년을 축하하고[皇紀二千六百年を祝し] 황운의 융성을 받들어 기도한다[皇運の隆盛を祈り奉る]”는 점을 밝혔다.

18) 鹽谷溫, 「明治天皇の聖德鴻業を仰ぎ奉りて」, 『斯文』 21(12), 1939, 1-11쪽; 高橋亨, 「李退溪(二)」, 『斯文』 21(12), 1939, 12-22쪽; 岡井愼吾, 「教育勅語渙發當時の事ども」, 『斯文』 21(12), 1939, 23-25쪽; 斯文會, 「大塚先儒祭」, 『斯文』 21(12), 1939, 84-85쪽.

19) 일제강점기 식민교육의 방도로 호명·소환된 대표적인 한국사의 인물로는 왕인과 퇴계를 들 수 있다. 특징적인 사실은 퇴계는 퇴계의 이름으로 활용되었다기보다는 제2의 왕인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식민교육의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제2의 왕인=퇴계론에 대한 심층연구로는 강해수, 「제2의 와니(王仁)로서의 이퇴계상과 도의담론 : 근현대 한일 양국의 이퇴계연구를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49, 2015, 93-121쪽 참조.

다카하시 도루의 퇴계론에서, 퇴계가 “창의발명이 빈약[創思發明の貧弱]”한 자에서 “위대한 유학자[偉大なる儒學者]”로 크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변화에 대해 1938년의 중일전쟁(그들의 표현으로는 지나사변) 발발로 인해 일선동조·일시동인·내선일체의 슬로건 아래, 조선인에게도 국가총동원체제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퇴계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sup>20)</sup> 다카하시 도루의 퇴계론의 변화는 중일전쟁 발발(1938)→황도유도론 생산(1939)이라는 구성작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21)</sup> 다카

20) 井上厚史, 「近代日本における李退溪研究の系譜學: 阿部吉雄・高橋進の學說の檢討を中心に」, 『總合政策論叢』18, 2010, 77쪽. 이효진은 다카하시 도루의 퇴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935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李曉辰, 「高橋亨の韓國學研究: 儒學・仏教・文學研究を中心に」, 『退溪學論集』12, 2013, 171쪽). 하지만 다카하시 도루의 퇴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총독부의 식민교육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관제·관변학자로서의 그가 교육칙어 발표 40주년을 기념하는 1930년 10월 당시 조선총독부가 대대적으로 다루었던 퇴계-교육칙어 연계설을 몰랐거나 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30년은 식민지배 전략과 식민교육 정책에서 교육칙어가 발표된 지 40년이 되는 해로서 그들에게는 기념비적인 해였다. 물론 다카하시 도루는 퇴계-교육칙어 연계설에 대해 발빠른 대응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는 그가 일찍이 조선인의 민족성을 폄훼하는 조직적인 글을 발표했던 사실로 인해 일어나는 내면의 충돌현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1930년 이래 계속 주조되었던 퇴계-교육칙어 연계설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安寅植, 「教育家の奮起を望む」, 『文教の朝鮮』1930년 10월號, 61-63쪽; 平山正, 「教育勅語渙發四十年を迎へて所感を述ぶ」, 『文教の朝鮮』1930년 10월號, 79-86쪽; 大山一夫, 「教育勅語渙發四十年を迎へて」, 『文教の朝鮮』1930년 10월號, 87-94쪽; 松田甲, 『日鮮史話 第六編(李退溪歿後三百六十年記念)』, 京城: 朝鮮總督府, 1930; 李東基, 「半島理學の祖 李退溪の思想一斑」, 『文教の朝鮮』1932년 1월號, 87-91쪽; 金聲律, 「退溪學說の一斑としての自省錄」, 『文教の朝鮮』1934년 2월號, 84-91쪽; 高田誠二・藤原一毅, 『日本の教育精神と李退溪(附李栗谷の擊蒙要訣と時事)』, 京城: 朝鮮事情協會出版部, 1934; 朝鮮總督府學務局內朝鮮教育會, 「『日本の教育精神と李退溪』に對する諸方面の反響」, 『文教の朝鮮』1935년 3월號, 195-197쪽; 松田甲, 「教育に關する勅語と李退溪」, 『文教の朝鮮』1935년 10월號, 97-106쪽; 奥田槐堂, 「李退溪の學統と日本思想界に及ぼせる影響」, 『東洋之光』1939년 2월號, 41-47쪽.

21) 高橋亨, 「王道儒道より皇道儒道へ」, 『朝鮮』295, 1939, 10-28쪽.

하시 도루의 황도유도론(1939)과 퇴계론(1939-40)은 1939-40년의 정치·군사·사회·문화적 상황과 직결된 것이기도 했다. 다카하시 도루의 황도유학은 내선일체와 일시동인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유학이자 사회과학적 현실과 정치적 문제의식이 배제된 유학이었다.

다카하시 도루는 당시 일본학술계에 팽배했던 한국유학=주자학이라는 도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그 결과 다카하시 도루는 한국 유학은 주자학에 불과하고 자신만의 철학은 없다는 한국유학 부제론을 주장했다.<sup>22)</sup> 일본의 실천중시의 유학개념을 원용하여 메이지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던 신용어를 가지고 한국유학을 설명하고자 했던 다카하시 도루의 유학연구는 식민사관과 연계되어 한국유학에 대한 불안정한 이해를 초래하였고, 이는 아직도 한국의 유학연구자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 이처럼 다카하시 도루의 한국유학 연구는 자료와 내용은 한국유학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방법론과 시점은 근대일본의 유학 개념을 사용한 것이었다.<sup>23)</sup>

### 3. 아베 요시오의 퇴계사상 일본전파론과 퇴계학의 굴절

아베 요시오[阿部吉雄, 1905~1978]의 퇴계학 연구에 개입된 정치성과 식민성을 점검하는 방편으로, 그 배경과 의도가 잘 드러난 시점인 1940년대 태평양전쟁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40년대 태평양전쟁기를

22) 李曉辰, 「京城帝國大學における朝鮮儒學研究: 高橋亨と藤塚鄰を中心に」, 『退溪學論集』 14, 2014, 291-315쪽.

23) 李曉辰, 「高橋亨の韓国學研究: 儒學・仏教・文學研究を中心に」, 『退溪學論集』 12, 2013, 174쪽.

주시하는 가운데 아베 요시오를 비롯한 일본의 관제·관변학자들의 퇴계 철학과 사상에 대한 논의경향과 추세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 아베 요시오의 1940년대 퇴계학 관련 저술을 판독함으로써 과연 퇴계사상의 일본전파론은 한국인·한국학자들에게 자긍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베 요시오는 퇴계 연구에 전념하여 일본주자학과 퇴계의 관계를 상세히 규명해 왔다. 우리에게 지한파·친한파 인사로 알려진 아베 요시오가 일본 주자학을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 1618~1682] 계열과 구마모토학파로 분류되는 오즈카 다이노[大塚退野, 1677~1750]—요코이 쇼난[横井小楠, 1809~1869]—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 1818~1891] 계열로 구분 제시하면서 마련된 상상의 공간에는 퇴계 철학이 짙게 자리잡고 있다.<sup>24)</sup>

아베 요시오는 퇴계학을 중핵으로 삼아 유교문화 연구와 그 보급에 힘쓰고 이를 통해 한일친선의 정신적 기반을 확립한다는 이상을 내세웠다. 그런 아베 요시오에 대해 우리는 한국철학자들보다 퇴계철학과 사상을 정밀 연구한 학자라면서 우호적으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아베 요시오의 퇴계론에 도사리고 있는 정치성과 식민성을 간과한다면 이는 퇴계학의 본연을 왜곡·굴절시키는 중대한 실수를 범할 것이라는 데 있다.

아베 요시오의 퇴계 연구의 궤적은 『이퇴계』(1944) → 『일본주자학과 조선』(1965) → 이퇴계연구회 결성(도쿄, 1972) → 『일본각판 이퇴계전집』

24) 퇴계철학의 일본 전파 및 그 수용 양상에 대해 시초담론-전파론의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한 글로는 강해수, 「근대 일본의 이퇴계 연구」, 『퇴계학논집』 2, 2008, 55-83쪽; 강해수, 「해방후·전후의 도의 담론과 이퇴계 : <도의의 제국>론의 사정」, 『퇴계학논총』 15, 2009, 79-96쪽 참조.

(1975) → 『이퇴계 : 그 행동과 사상』(1977) 등의 시계열을 갖는다. 여기서 특히 『이퇴계』는 태평양전쟁의 길목에서 패전의 기운이 감도는 시기에 저술·발간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25)</sup> 『이퇴계』(1944)와 『이퇴계 : 그 행동과 사상』(1977) 두 책은 33년의 시간차를 보이면서 시리즈 명이 “일본교육선철총서”에서 “동양인의 행동과 사상”으로, 그리고 “도의철학의 창시자로서의 퇴계의 행실사상” 고찰이 “퇴계의 행동과 사상” 고찰로 바뀐 정도이다. 1940년대의 발언과 1970년대의 발언에는 사실상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3년의 시간차에 대한 접근해석에는 무엇보다도 1944년과 1945년의 1년 사이에 벌어진 내막을 살피는 작업이어야 한다. 『이퇴계』가 태평양전쟁의 길목에서 패전의 기운이 감도는 시기에, 퇴계를 방편으로 삼아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쟁터, 죽음과 파멸의 지대로 내몰기 위한 저술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퇴계』(1944)와 『이퇴계 : 그 행동과 사상』(1977) 사이의 33년의 시간차, 그 풍화작용이 문제가 아니라, 1944년과 1945년 사이의 1년 동안 벌어진 전쟁과 죽음과 파멸의 장면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베 요시오가 퇴계를 앞장세운 것은 반도 사회의 지식인들을 향해 황국일본의 국체의 본의에 합류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작업이기도 했다. 아베 요시오는 퇴계야말로 식민지 조선인의 동화와 개조 작업에 긴요한 존재이자, 반도사인의 혼을 근본적으로 구하는 양약이라고 단정하였다.<sup>26)</sup>

25) 박균섭, 「전시동원체제와 퇴계학 : 아베 요시오와 박종홍의 연속성」, 『교육철학연구』 36(4), 2014, 121-141쪽.

26) 阿部吉雄, 『李退溪(日本教育先哲叢書)』, 東京 : 文教書院, 1944, 序文 2쪽.

단적으로 말하면 양 선생(山崎闇齋, 元田永孚)의 사상은 황국의 도에 근본을 두고 공자나 주자나 퇴계선생의 도의사상을 융회·순화·지양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일반적인 인의도덕의 가르침은 실로 황국의 도를 중핵으로 하는 인의도덕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퇴계선생의 사상이 특히 일본정신사에서 선각자들에게 깊이 섭취된 것은 주의할 만한 것으로, 이로써 퇴계교학의 순수성을 살필 수 있다. 퇴계선생의 자성적·심학적·실학적인 교학이나 도의에 감분흥기토록 하는 교육방법 등은 특히 반도 지식인의 혼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양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반도 사회는 그의 교학을 반드시 제대로 받아쓰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 반도는 황국일본의 일환으로서 국체의 본의에 투철하고 도의를 확립하는 일을 기본적인 명제로 삼아 굳세게 약진하고 있다. 올 가을(1943년 10월)에 심혼의 엄숙한 연성, 부동의 도의심 함양을 제창한 퇴계교학의 현대적 의의를 고찰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베 요시오는 야마자키 안사이와 모토다 나가자네에 대해 “황국의 도에 근본을 두고 공자나 주자나 퇴계선생의 도의사상을 융회·순화·지양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아베 요시오가 중국인(공자, 주자)이나 조선인(퇴계)보다도 이를 일본적 상황에 맞게 융회·순화·지양한 일본인(야마자키 안사이, 모토다 나가자네)이 뛰어나다는 것을 최종 확인한 셈이다.<sup>27)</sup> 아베 요시오가 도의사상의 융회·순화·지양을 말하면서 이를 퇴계교학의 현대적 의의를 고찰하는 일로 높여 말한 것은 당시 경성제국대학 총장의 신동아 건설 사업의 성패여부에 대한 진단 및 해법과도 일치한다. 신동아 건설사업이 사상누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절실히 요망되는 것은 상호문화 이해이며, 상호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27) 權純哲, 「退溪哲學研究の植民地近代性: 韓國思想史再考Ⅱ」, 『日本アジア研究』 3, 2006, 85-86쪽.

오해를 사거나 경시 모멸의 기분을 갖게 된다면 사실상 신동아 건설 사업은 실패할 것이라는 경고와 동일 맥락을 갖는 말임을 알 수 있다.<sup>28)</sup> 바로 그 기조에서 황국의 도를 중핵으로 하는 인의도덕의 가르침(퇴계의 언어로 말하자면 敬)이 요망되는 것이기도 했다. 아베 요시오는 『이퇴계』(1944)의 서문에서 이 책을 쓰기까지 도움을 받았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sup>29)</sup>

① 이퇴계선생에 관한 연구의 종래 발표된 것으로는 다카하시 도루 박사의 『이퇴계』(『斯文』 게재)가 가장 자세하며, 근세 일본-조선 유학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마즈다 고(松田甲) 씨의 『일선사화』에 약간의 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이 두 저술에서 지시를 받은 바가 적지 않다(\*원문에서는 “적다(少くない)”고 하였지만 “적지 않다(少なくない)”의 오기인듯 하여 “적지 않다”로 번역함 : 연구자). 또한 시라가 주키치(白神壽吉) 씨의 『이퇴계선생전』(소책자), 박종홍 씨의 『이퇴계선생의 교육사상』(『慶北の教育』) 등을 참고하였다. 부기하여 선배의 연구에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1943년 10월.<sup>30)</sup>

28) 速水滉, 『日本文化の大陸進出』, 『文教の朝鮮』 1940년 2월호, 15쪽.

29) 阿部吉雄, 『李退溪(日本教育先哲叢書)』, 東京: 文教書院, 1944, 序文 3쪽.

30) 아베 요시오가 『이퇴계』(1944)에 관한 저술을 내면서 참고했던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박종홍(1928), 마즈다 고(1930), 시라가 주키치(1934), 다카하시 도루(1939-40) 등을 들 수 있다. 단연 박종홍의 가장 앞선 연대에 해당한다. 박종홍은 대구고보 교유로 있을 때에 <이퇴계선생의 교육사상>을 주제로 일문원고를 탈고(1927.7.18)하고 이를 1928년 『경북의 교육』(제6호)에 게재하였다(박종홍, 『퇴계의 교육사상』, 『박종홍전집 I』, 서울: 민음사, 1928, 125-158쪽). 이는 박종홍이 1929년에 전문학교 입학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철학과의 선과생으로 들어가기 1년 전의 일이었다(소광희, 『열암 박종홍의 생애와 사상』, 『서울대학교대학원동창회보』 17, 2011, 9-14쪽). 아베 요시오가 퇴계에 관한 저술을 내면서 참고했던 저자들 중에 마즈다 고를 제외한 다카하시 도루, 시라가 주키치, 박종홍이 모두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또는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와 인연이 있었다

② (본서에) 원전(으로 실린) 『성학십도』(pp. 141-187)는 후치카미(淵上)와 오와다(大和田) 두 학생에게서 받은 책이다. 지금 두 학생은 학병이 되어 용감무쌍한 정신으로 전선을 향했다. 1944년 2월 다시 알림.

아베 요시오는 『이퇴계』(1944)에 『성학십도』를 부록으로 실었다(141-187쪽). 그 『성학십도』는 후치카미(淵上)와 오와다(大和田) 두 학생에게서 기증받은 책이다. 아베 요시오가 퇴계-『성학십도』를 제시하면서 이 책을 선물한 두 학생은 학병이 되어 용감무쌍한 정신으로 전선을 향했다고 지적하였다. 퇴계-『성학십도』의 취지는 급진론적 관점에서 국가를 되찾자는 입장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삶과 삶의 길을 찾자는 논리, 식민지현실에 저항하지 말고 근대화(이용후생)를 위해 노력하는 조선총독부의 시정방침에 따르자는 논리로 이어졌다. 이는 『중용』적 세계관을 통해 친일을 정당화했던 당

---

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다카하시 도루는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교장, 시라가 주키치는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교장, 박종홍은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교사를 역임했다. 이들은 퇴계를 호명하여 전쟁인문학의 소재로 삼았다. 참고로 식민교육 당국 및 교육자들은 퇴계를 호명하는 것 말고도 신라의 화랑을 호명하여 식민교육의 도구로 삼았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조선의 청년·학도를 태평양전쟁의 전선에 내보내는 과정에서 화랑정신을 이어받아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추동하였는바, 그 주된 과업을 경북지방 소재 학교(경북공립중학교, 대구공립중학교, 경북공립고등여학교)에서 맡았음을 알 수 있다(慶北·大邱·慶北公立高等女學校, 『內鮮一體精神 新羅武士道』, 『文教の朝鮮』 1940年 2月號, 20-25쪽). 이는 해방 이후의 화랑에 대한 인식과 대응양상을 파악하는 일과 연동되어있다. 해방 이후에는 화랑도를 민족통일의 원동력과 총화단결의 상징적 존재로 높게 평가하였다. 경주에 화랑교육원을 설립(1973. 5. 30)하면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충성심을 동원하고, 국민들을 국가와 연결시켰다(최광승,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의 애국적 국민 생산 프로젝트: 화랑도와 화랑교육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 2014, 237-275쪽). 해방 전·후의 퇴계와 화랑을 강조하는 방식은 이처럼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른 장면을 보여주었다.

시 친일유림의 행태와도 그대로 겹친다. 일제강점기의 친일유림은 유교 경전을 이론적 기초로 삼아 망국의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최선의 방도를 찾자는 논법을 개발·유포하였다. 이는 조선의 현실을 거경—궁리 중에서도 전자의 결여·결핍 상태로 파악하면서 퇴계의 경설(경의 철학)을 양약으로 삼아 그 결여·결핍을 보충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했다.<sup>31)</sup> 퇴계사상에 대한 일본적 해석의 핵심은 사회과학적 현실과 정치적 문제의식이 배제된 성격의 유학, 비판의식을 잠재우는 유학이었고, 그것은 식민권력에 순응·협력하도록 만드는 기획이기도 했다.

아베 요시오는 퇴계를 앞장세워 조선의 청년·학도를 전쟁과 죽음의 대열로 내모는 데 필요한 일본국체와 도의철학을 강조하였다. 그야말로 관제·관변학자의 저비용-고효율의 식민교육방식을 통해 무반성·무자각의 퇴계학이 확산·유포되었던 것이다. 1944년 당시만 해도 아베 요시오는 퇴계학에 대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전쟁인문학의 가동 공간을 확보하는 가운데 전쟁과 죽음을 추동하는 파시즘적 직분을 수행

31) 퇴계-교육척어 전파론에서는 퇴계의 경설[경의 철학]이 야마자키 안사이의 경설[경의 철학]로 이어졌음을 얘기한다. 하지만 야마자키 안사이의 경설은 유학의 틀을 벗어나 신도의 교의로까지 나아간 것이었다. 야마자키 안사이의 사색의 격렬함은 때로는 광신적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종교성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전파론에서 처럼, 퇴계와 야마자키 안사이를 같은 경설을 표방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부적절한 것이다. 퇴계의 경설이 야마자키 안사이에게 미친 영향은 아베 요시오가 이해했던 것과 같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한층 중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井上厚史, 『李退溪の敬說と山崎闇斎の敬說』, 『南道文化研究』 20, 2011, 131-174쪽. 특히 야마자키 안사이의 경설이 유학의 틀을 벗어나 신도의 교의로까지 나아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는 유교와 신도사상의 습합으로 만들어진 유가신도학과 성격이 겹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潤川健三, 『日本と朝鮮における朱子學』, 京都: 同朋社出版, 1988, 10쪽 참조.

하였다. 여기서 참고로 도모에다 류타로와 아베 요시오의 퇴계—오즈카 다이노—모토다 나가자네—메이지천황—교육칙어로 이어지는 내러티브의 실상을 간취할 필요가 있다.

① 일본의 근대화에 작용하였고 또 작용하고 있는 주자학의 정신이 똑 떨어지게 섭취되고 있다.……(교육칙어에서 말하는) ‘황운’을 ‘국운’이라고 규정한다면,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통하는 인륜적 국가실현의 교육강령이다.……모토다 나가자네에 의한 이들 실천조목의 제시는 중한일과 동아시아의 세계에 흘러있던 주자학의 근대적 의의를 재확인한 것이다.<sup>32)</sup>

② 메이지 유신 후, 서구사상이 일본을 풍미하여 일본의 교육지침도 크게 좌우로 동요되었을 때, 고래의 충효사상으로 교육의 연원으로 삼아야 함을 보여준 것이 메이지천황이며, 이를 보좌하여 교육칙어를 제시하는 데 진력한 것이 모토다 나가자네였다.……모토다 나가자네가 이퇴계 선생에게 경도한 오즈카 다이노의 학문적 흐름을 따른 자이었다는 것도 흥미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sup>33)</sup>

도모에다 류타로는 교육칙어에 대해, 어느 나라에도 통하는 인륜적 국가 실현의 교육강령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그야말로 그의 정체성과 세계관의 실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칙어의 강령은 군국주의·제국주의·팽창주의의 지향점을 내장한 것이었고, 바로 이 때문에 전후일본에서도 미군정에 의해 폐기된 교육강령이었다는 데 있다. 정상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자라면 어느 나라에도 통한다는 식의 망언을 입에 담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아베 요시오는

32) 友枝龍太郎, 「인륜의 도로서의 충과 효」, 『퇴계학보』 15, 1977, 116-117쪽.

33) 阿部吉雄, 「일본의 충효론」, 『퇴계학보』 15, 1977, 99-100쪽.

선진유학·주자학의 충효론과 일본식 충효론을 구분하지 않고 단지 서구 사상의 대항개념으로서만 충효론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정밀성과 정확성을 포기했다는 문제가 있다. 일본식 충효론이 갖는 특수성을 몰랐을 리 없는 그가 “충과 효는 하나의 뿌리[忠孝一本]”라는 그들의 충효론을 퇴계사상과 억지 연계시키면서 퇴계—오츠카 다이노—모토다 나가자네 등으로 이어지는 일본교육의 군국주의적 구도를 성찰 없이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의 관점은 정직한 언변이라고 보기 어렵다.<sup>34)</sup>

아베 요시오는 퇴계를 일본의 교육선철로 추앙하는 가운데 그를 제2의 왕인으로, 그리고 반도 도의철학의 창시자로 추켜세웠다.<sup>35)</sup> 제2의 왕인=퇴계론의 연장·확대판은 이퇴계연구회의 설립취지문(1972)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베 요시오는 이퇴계연구회의 설립취지문에서 “이퇴계는 한국이 자랑하는 가장 위대한 학자이며 교육가이고 또한 삼백수십년 동안 일본의 뜻있는 학자들로부터 대단히 존중받았던 사람이다. 극언하면 제2의 왕인이라고 하여도 좋을 정도의 영향을 일본의 정신사 위에 남겼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의 일본인들은 많이 잊어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36)</sup> 도모에다 류타로는 퇴계를 주제로 삼아 동아시아 모든 국민의 정치·경제·교육·문화 전반에 걸친 연대의식을 거론하면서 퇴계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세계평화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

34) 中村雄二郎, 『日本の思想界：戦前・戦中・戦後』, 東京：勁草書房, 1967, 253-264쪽 ; 박균섭, 「유교사상의 일본적 변형 : 충효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답사자료집(2004.2.18. 서울교육대학교), 25-35쪽 참조.

35) 阿部吉雄, 『李退溪(日本教育先哲叢書)』, 東京：文教書院, 1944, 2쪽.

36) 阿部吉雄, 『李退溪：その行動と思想(東洋人の行動と思想 11)』, 東京：評論社, 1977, 김석근 역, 『퇴계와 일본유학』, 서울：전통과 현대, 1998 ; 阿部吉雄, 「李退溪の史的地位と日本儒學との異質性」, 『李退溪研究會々報』 4, 1978, 37-52쪽 참조.

다.<sup>37)</sup> 퇴계와 평화를 연계짓는 작업에 대해 말하자면, 적어도 아베 요시 오나 도모에다 류타로나 우노 세이이치의, 퇴계를 동아시아의 연대의식, 선린우호, 세계평화 담론의 원천으로 삼는 작업은 퇴계학의 본연과는 동떨어진 평화론이자 식민교육의 불순한 의도가 녹아든 평화론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퇴계연구회의 제3대 회장을 지낸 우노 세이이치[宇野精一]는 이퇴계 연구회가 1940년에 도쿄 우에노공원 안에 건립된 왕인박사의 송덕기념비를 새롭게 대신하는 형태로 결성되었음을 전하였다.<sup>38)</sup> 전시동원체제 하에서는 왕인에 이어 퇴계를 제2의 왕인으로 추켜세우면서 내선일체의 도의철학을 강구하였고, 해방이후에는 왕인과 퇴계의 호명을 통해 동아시아의 연대의식, 선린우호, 세계평화 담론을 유포하였다.<sup>39)</sup>

아베 요시오가 퇴계를 일본의 교육선철, 반도 도의철학의 창시자로 높인 의도는 태평양전쟁 막바지에서 퇴계의 효용가치를 간파했기 때문이다. 퇴계를 앞세워 저비용-고효율의 방식으로 전환기의 신윤리를 부식하여 전쟁의 승리를 얻어내기 위함이었다.

37) 友枝龍太郎, 『李退溪：その生涯と思想』, 서울 : 退溪學研究院, 1985, 246-247쪽.

38) 宇野精一, 「일본에 있어서의 이퇴계 연구 소사」, 『퇴계학보』 44, 1984, 470-471쪽.

39) <제2의 왕인=퇴계>론에 대해 아베 요시오와 박종홍을 중심으로 고찰한 글로는 강해수, 「황도유학과 도의 담론, 그리고 식민지조선」, 『한국학연구』 28, 2012, 1-36쪽 ; 강해수, 「제2의 와니(王仁)로서의 이퇴계상과 도의담론 : 근현대 한일 양국의 이퇴계연구를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49, 2015, 93-121쪽 참조. <제2의 왕인=퇴계>론이 식민교육의 자장 위에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왕인 전승 그 자체에 개입된 일본의 욕망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근섭, 「왕인 관련 사료와 전승 검토 : 식민 교육과 주체성 교육 문제」, 『한국교육사학』 34(2), 2012, 25-48쪽 ; 한미옥, 「설화의 정치성과 전승전략 : 도선설화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27, 2013, 257-283쪽 참조.

일·한 병합 이래 반도는 황국의 땅이 되었다.)……도의의 땅 조선은 이제……황민의 도 연성<sup>40)</sup>에 즈음하여 황국 일본을 이루어내기 위해 새로운 도의의 세계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금년 가을(1943년 10월)에, 반도 제일의 교학자, 도의철학의 창시자다운 퇴계의 행실사상을 돌아보며 황민으로서의 사색을 깊게 하고 심혼을 연마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닐뿐더러, 반도의 현실에 직면하여 교육·교화의 임무를 맡은 자에게는 절실한 현실적 의의를 갖는다고 믿는다.<sup>41)</sup>

아베 요시오는 “금년 가을(1943년 10월)”의 상황과 “퇴계의 행실사상”을 연결짓는 무리수를 두었다. 그것은 퇴계학의 본연을 근본적으로 이탈한 것이었다. 아베 요시오의 작업은 퇴계의 호명·소환을 통해 조선인 청년·학도의 젊은 피와 목숨과 희생을 얻어내기 위한 기만책일 뿐이었다. 전시동원체제는 중일전쟁 발발(1937.7.7), 일본군의 난징점령(1937.12.13), 지원병제 실시(1938.2), 국민징용령 공포(1939.9.30), 국민학교령 공포(1941.3), 태평양전쟁 발발(1941.12.8), 징병제 공포(1943.3.1) 및 시행(1943.8.1), 학도전시동원체제 발동(1943.7), 학병제 실시(1943.10.20) 및 입영 시작(1944.1), 전시교육령(1945.5)이라는 좌표를 만들어갔다. 아베 요시오가 『이퇴계』(1944)의 서문을 쓴 시점(1943.10, 다시 알림 : 1944.2)은 학도전시동원체제 발동(1943.7)—학병제 실시(1943.10.20)—학병 입영 시작(1944.1)이라는 전쟁과 죽음의 시계열과 그대로 일치한다. 아베 요시오의 퇴계를 통한 학생 동원과 전선 투입에 관한 무의식은 황국의 땅, 황

40) 황민의 도 연성은 인고단련의 실천을 전제로 삼는다. 인고단련의 실천은 왜소해지거나 퇴영적인 정신상태를 일소하는 일이기도 하며, 국체명징과 내선일체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野中齋之助, 「紀元二千六百年を迎へて若き教育者に寄する」, 『文教の朝鮮』 1940年 2月號, 39쪽.

41) 阿部吉雄, 『李退溪(日本教育先哲叢書)』, 東京 : 文教書院, 1944, 7-8쪽.

민의 연성, 도의의 세계 건설, 심혼의 연마로 이어지는 식민교육의 전시장이었다. 아베 요시오가 “지금이야말로 반도는 황국 일본을 이루어내기 위해 국체의 본의에 투철하여 도의를 확립하는 일을 기본적인 명제로 삼아 약진해야 한다”<sup>42)</sup>고 역설한 것도 조선의 청년·학도를 전쟁과 죽음과 파멸의 지대로 내몰기 위한 기만의 어법을 드러낸 것이었다. 아베 요시오는 이처럼 전시동원체제하의 시정방침에 철저히 부응하는 가운데 전쟁인문학의 제단에 퇴계를 희생양으로 갖다바쳤다.

#### 4. 해방이후 퇴계학 연구의 전문성 점검

한국 근·현대의 유교사상에 대한 논의 과정은 식민체제와 해방공간을 경험한 세대의 정치·사회·학술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식민체제와 해방공간에서 생산된 다양한 유교이론은 미묘한 맥락과 복잡성을 띠고 있다. 한국 유교사상은 일체 강점자들에 의해 주리-주기의 도식으로 재해석되기도 하였고, 지배체제 구축을 위한 차원에서 해체를 통한 재구성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 황도유학, 일본식 충효론, 교육칙어체제를 위한 퇴계학의 재구성 등의 양상이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유교의 식민성과 황도유학의 잔재는 그 유포를 탈각하지 못한 채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현대 한국유교의 헤게모니로 작동하고 있다.<sup>43)</sup> 해방 후의 퇴계학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해방 전

42) 위의 책, 序文 2-3쪽.

43) 김경호, 『탈식민과 한국유교: 식민지 근대성의 그늘, 너머』, 『유교사상문화연구』

의 다카하시 도루와 아베 요시오의 퇴계론은 어떠한 해석과 극복의 대상이었는데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다카하시 도루와 아베 요시오, 그리고 본장에서 언급할 박종홍은 모두 경성제국대학을 거점으로 삼아 퇴계론을 전파했던 인물들이다. 그만큼 그들이 유포했던 퇴계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계승하는 일은 식민적 굴절로 얼룩진 퇴계학을 퇴계학의 본연(그 자체)인 것처럼 오인하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sup>44)</sup> 퇴계학의 본연을 제대로 점검·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퇴계학의 일본전파론을 극복하

62, 2015, 91-124쪽.

44) 퇴계학은 큰 틀에서 보면 식민적 굴절과 설화적 변용이라는 두 갈래의 오독 양상이 드러난다. 퇴계는 일제강점기에는 식민교육의 소재로 이용되었고(식민적 굴절) 조선시대 이래의 구전설화에서는 음담패설의 주인공으로 곧잘 등장했다(설화적 변용). 설화적 변용(강재철·홍성남·최인학 편, 『퇴계선생설화』, 서울: nosvos, 2011)에 관해서는 본 연구주제가 아니지만 추후 식민적 굴절에 대한 논의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살피는 과제로 삼을만하다. 퇴계에 관한 설화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퇴계의 삶을 왜곡하며 후세 사람들의 이목을 어지럽히고 역사의 영역에서 불신을 초래하며 퇴계학의 정체성을 흔들 수도 있다(김언중, 「퇴계의 행적과 일화의 여러 양상」, 『퇴계학보』 138, 2015, 107-157쪽). 김언중은 퇴계의 일화 중 허구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를 예거했다. ① 대장장이 裵純은 퇴계와 동향인 예산 사람으로 퇴계를 존앙하여 심상을 입고 퇴계의 철상을 만들기도 했으나 퇴계에게 소수 서원에서 글을 배운 적이 없고 퇴계의 제자일 수도 없었다. ② 둘째 며느리 柳氏가 개가한 것은 사실이다. 둘째 며느리가 개가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퇴계는 아들 이준을 보내어 만류한 적이 있다. 개가를 권했다거나 그 후에 길 잃은 퇴계가 개가한 며느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는 것은 허구이다. ③ 단양기생 杜香과 퇴계의 로맨스가 갈수록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만, 그녀의 기명은 杜陽이며 퇴계보다 후대의 생존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나이 스물에 죽었고 유언에 따라 강선대 건너편에 묻힌 것은 사실이다. 퇴계와의 로맨스는 18세기의 호사가들이 꾸며낸 허구이다(김언중, 「퇴계의 행적과 일화의 여러 양상」, 『퇴계학보』 138, 2015, 107-157쪽). 배순과 두향에 관한 이야기는 실존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면서도 퇴계와는 직접 관계없는 사람들이며 명백히 참된 얘기를 바탕으로 삼고 있지 않다(정석태, 「퇴계 이황 이야기의 서사화 양상: 단양의 기생 두향과 풍기의 대장장이 배순 관련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37, 2010, 109-138쪽).

는 문제, 전쟁인문학으로서의 퇴계학을 탈각하는 문제가 지속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4.1. 퇴계학의 일본전파론 극복 문제

퇴계사상이 교육칙어로 연계된다는 영향사의 관점을 설정하고 퇴계학의 일본전파론을 내세우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퇴계의 저술을 전파론의 도구로 삼아 논의를 전개해왔다. 퇴계학의 일본전파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자서절요』와 『자성록』과 『성학십도』에 대한 접근과 해석 양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퇴계학의 일본전파론을 설파했던 우노 세이이치는 퇴계의 저술 또는 관계 문헌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중시되었던 책(『주자서절요』), 한국에서는 중시되었어도 일본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책(『성학십도』), 일본에서는 중시된 데 반해 조선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책(『자성록』, 『주자행장』, 『서명고증강의』)을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sup>45)</sup> 그런데 이러한 설명방식에 따르면, 경성제국대학 졸업생 박종홍이 퇴계론을 제시하면서 퇴계—『성학십도』—교육칙어로 이어지는 논점을 제시했던 사실은 설명력을 갖기 어렵다. 전파론을 따르면서도 왜 『주자서절요』나 『자성록』이 아닌 『성학십도』가 끼어들었는지를 생

45) 宇野精一, 「일본에 있어서의 이퇴계 연구 소사」, 『퇴계학보』 44, 1984, 478쪽;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5. 특히 에도시대 주자학자들은 퇴계의 학문적 성과를 통해 주자학의 세계에 입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阿部吉雄, 「序」, 李退溪研究會, 『日本刻版李退溪全集(上)』, 서울: 退溪學研究院, 1975, 1-6쪽 참조. 그들은 퇴계의 『주자서절요』를 먼저 공부하여 주자학에 대한 지적 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방대하고도 난해한 『주자대전』을 공부한다는 방략을 취하였다.

각한다면 다카하시 도루—아베 요시오—마츠다 고—시라가 주키치—박 중홍의 순환구조로 움직이는 퇴계론은 합리적 설명구조와 연구의 전문성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퇴계사상의 일본전파론은 일본을 발신지로 하여 식민교육론의 본령을 이루는 것임에도, 한국인·한국연구자들은 그 의도를 간과하지 못한 채 이를 맹목적으로 수신하는 관점과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다 보니 전파론을 통해 퇴계의 위대함을 역설코자 하는 에너지는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근·현대사 장면에서 퇴계학의 본연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헤아린다면 향후 퇴계학 연구에 조정작업이 요망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일본사상사의 큰틀을 놓고 말하자면, 에도시대 이래 일본 사상사에서 정한론적 언설은 강도 높게 작동하였다. 그들은 일관되게 한국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 과시 아닌 무시의 전략을 채택해왔다. 그들에게 즐기찬 흐름이었던 정한론은 진공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근세를 통해 조선의 특정 인물(예컨대 퇴계)이나 문물에 대해 존경·흠모하는 마음을 가진 주자학자들이 존재하긴 했으나 이들은 일본 내에서 사상사적으로 크게 주목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sup>46)</sup> 이러한 일본사상사의 큰 흐름에 비추어볼 때, 다카하시 도루나 아베 요시오의 퇴계론은 학술적 차원의 접근과 논의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차원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방편 내지 소재로 이용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의 퇴계론에는 진정한 도덕관념과 선의지가 작동되지 않았다. 단지 식민교육과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

46) 井上厚史, 「近代日本における李退溪研究の系譜學: 阿部吉雄・高橋進の學說の檢討を中心に」, 『総合政策論叢』18, 2010, 63쪽.

략으로 퇴계학을 조직·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sup>47)</sup>

다카하시 도루와 아베 요시오의 퇴계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처럼, 식민교육의 차원에서 퇴계를 호명-소환-동원한 결과로서의 퇴계론은 퇴계의 삶과 삶으로부터 동떨어진 퇴계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퇴계론에서 주목할 것은 박종홍의 퇴계 연구자로서의 전문성 문제이다. 박종홍은 퇴계의 도덕이 일본에 끼친 명확한 사례로, 조선총독부 촉탁 마즈다 고[松田甲]가 수집한 역사적 예화<sup>48)</sup>를 인용하면서, 이를 대체로 틀림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sup>49)</sup> 박종홍은 “퇴계의 『성학십도』에 나타난 학의 기본정신이……교육칙어의 골자가 된 것이라고 하여도 무방한 것이다”<sup>50)</sup>라고 하면서도, 그 주장의 출처에 대해서는 “지금의 필자인 나로서

47) 우노 세이이치는 오즈카 다이노[大塚退野, 1677~1750]—요코이 쇼난[横井小楠, 1809~1869]—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 1818~1891]로 이어지는 구마모토학파를 중심으로 퇴계학의 의미를 설명한 바 있다(宇野精一, 『일본에 있어서의 이퇴계 연구 소사』, 『퇴계학보』 44, 1984, 469-470쪽). 그런데 메이지유신 이래 구마모토현 출신들은 황도주의·국가주의 이념을 강력 표방했던 자들이기도 하다. 구마모토의 국권당(1889년 조직)도 주목할 일이다. 예컨대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관련된 당시 민간인 48명 중에 21명이 구마모토현 출신이었다(稻葉溪雄, 『舊韓國~朝鮮の日本人教員』, 福岡:九州大學出版會, 2001, 9쪽; 최재목·김정곤, 「구도 다케키의 의학과 황도유교에 관한 고찰」, 『의사학』 51, 2015, 670쪽에서 재인용). 오즈카 다이노로부터 시작된 구마모토의 학통은 우리의 향교 격인 구마모토를 대표하는 학교 지슈칸[時習館]을 통해 이어졌다. 요코이 쇼난—모토다 나가자네—이노우에 고와시 모두 지슈칸 출신이다. 그런데 그 학통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다름 아닌 조선의 대유학자 퇴계 이황이라는 것이다(최재목·김정곤, 「구도 다케키의 의학과 황도유교에 관한 고찰」, 『의사학』 51, 2015, 669-673쪽). 그들이 조금이라도 존재에 대한 역사문화적 탐구와 성찰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그들의 존재를 언급하는 장면에서 퇴계를 함부로 끌어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48) 松田甲, 『日鮮史話 第六編(李退溪歿後三百六十年記念)』, 京城:朝鮮總督府, 1930.

49) 박종홍, 「우리사표 이퇴계선생(하)」, 『지방행정』 9권 77호, 1960, 271-275쪽.

50) 박종홍, 「이퇴계론: 경으로 일관된 생애와 사상」, 『박종홍전집(IV)』, 서울:민음사, 1963, 387쪽.

부언하여야 할 것은 내가 여기서 언급한 일본 사람들의 문헌은 아직도 나 자신이 직접 섭렵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면서 마츠다 고가 이미 소개한 바 있는 글에 많이 의거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종홍은 “우리는 도의를 구호로 부르기 전에 진정한 우리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주체성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sup>51)</sup> 박종홍이 퇴계론을 제시하면서 믿고 인용했던 마츠다 고는 한일문화교류사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류 작업을 통해 동화정책-식민정책의 동력을 확보코자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마츠다 고는 한일문화교류사를 천착했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지만, 그의 연구이력과 역량에 비추어볼 때 역사·철학·사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마츠다 고의 1930년의 『일선사화』(제6편)는 퇴계의 360주기 기념호(李退溪歿後三百六十年記念)였고, 이는 조선총독부가 1930년을 교육칙어 반포 40주년이라며 대대적으로 기념했던 해였음을 유의한 결과 나온 산물이기도 했다. 이 예사롭지 않은 시점(1930)은 박종홍의 퇴계론(1928)과 함께 거론해야 마땅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박종홍은 일찍이 일본의 관제·관변학자 내지 인물들이 유포했던 퇴계론에 안주한 채 퇴계의 교육사상을 기술했을 뿐이었다. 박종홍은 “진정한 우리를 알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했으나, 식민교육의 장치를 제대로 견어내지 못했던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어쩌면 우리를 제대로 아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박종홍의 퇴계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식민교육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퇴계론을 극복하지 못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 이해 및 연구는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

51) 위의 글, 389쪽.

조선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라본 조선유학이며, 메이지일본의 학문방법론을 적용해 바라본 조선유학이라는 특징을 갖는다.<sup>52)</sup> 이는 다카하시 도루 및 아베 요시오와 같은 일본의 관제·관변학자들이 일제강점기에 행한 연구가 후일 한국의 학교와 교과서, 그리고 연구 및 저술에 지독한 훈습이 배도록 만들었음을 의미한다.<sup>53)</sup> 그동안 많은 한국의 철학자·역사학자·교육학자들은 다카하시 도루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엄밀히 보여주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아직도 다카하시 도루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으면서 교육·연구·저술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에 대한 구분과 변별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한국의 철학·역사학·교육학은 연구의 저변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4.2. 전쟁인문학으로서의 퇴계학의 탈각 문제

1930-40년대 제국주의·군국주의의 시대, 15년전쟁을 추동했던 인문학을 일컬어 전쟁인문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당대의 삶을 주도하고 도포하는 사고와 가치의 핵심은 전쟁이었다. 하지만 전쟁인문학이라고 해서 항상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다. 전쟁과 파멸의 지점을 도포한 것은 도의, 문화, 창조, 건설, 신윤리, 신체제 등과 같은 긍정적 세계관과 희망 가득한 레토릭이었다.

52) 김기주,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관을 다시 논함」, 『퇴계학보』 132, 2012, 275-307쪽; 이동희,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조 주자학 연구의 허와 실: 오늘날 철학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한국학논집』 60, 2015, 203-240쪽.

53) 권인호, 「高橋亨의 皇道儒學: 李滉, 高橋亨, 朴鍾鴻의 주자성리학과 중앙집권·국가주의 비판」, 『대동철학』 55, 2011, 1-24쪽.

전시동원체제와 퇴계학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퇴계를 내세워 제국·군국·식민적 욕망을 채웠던 관제·관변학자들을 만나게 된다. 전쟁 중에 퇴계를 내세워 식민적 욕망의 구현체인 도의입국론을 표방했던 아베 요시오는 전후에도 여전히 퇴계 연구의 의의를 국가 재건과 아시아 평화에서 찾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전후에도 교육직어체제에 입각한 도의국가 담론을 주조해냈던 것이다. 아베 요시오의 퇴계학 연구가 추동력을 발휘하면서 한·일의 범주를 넘어 퇴계학의 국제화가 촉발된 것도 이러한 아베 요시오의 레토릭을 맹목적으로 흡수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전쟁인문학의 가동 공간에서 국가(대일본제국)는 전쟁을 수행하는 장치이고 국민(대동아민족)은 그 전쟁의 희생자일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전쟁인문학은 전체주의의 가치를 표방하면서 파시즘의 직분을 적극 수행하였다.

다카하시 도루—아베 요시오—박종홍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대한 해석에는 1930-40년대의 전쟁에 대한 해석이 중심을 차지한다. 1940년 5월 28일부터 『조선일보』에 특집 〈현대가 요구하는 신윤리〉가 연재되었다. 그 첫 칼럼으로 〈결단의 시대 : 전환기를 뚫고 나가는 힘〉을 쓴 박종홍은 결단이야말로 현대가 요구하는 윤리라고 말하면서 당시 분위기를 표상하였다.<sup>54)</sup> 물론 이때의 결단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는 거리가 멀며,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모든 삶을 걸고서 시작하는 긴장된 게임에 해당한다.<sup>55)</sup>

54) 박종홍, 「현대가 요구하는 신윤리 : <결단>의 시대—전환기를 뚫고 나가는 힘」, 『박종홍전집(I)』, 서울 : 민음사, 1940, 422-423쪽.

55) 조관자, 「세계사의 가능성과 나의 운명 : 서인식의 역사철학과 교토학파」, 『일본연구』 9, 2008, 44쪽.

1940년은 식민통치 및 식민교육의 과정에서 특별한 해이다. 1940년은 그들의 소위 진무천황[神武天皇]의 건국 2600년을 맞은 해이기도 하고 (1940년 2월 11일 : 神武天皇 즉위 2600주년 紀元節), 그들이 동화=일본화=내선일체 이데올로기의 완성품으로 상징한 창씨개명정책의 개명신청이 시작된 것도 1940년 2월 11일이었다. 1940년은 또한 1937년의 중일전쟁 이래 신동아 건설이라는 성스러운 과업(聖戰=聖業=天業)을 4년째 수행하는 해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신동아 건설, 그 성스러운 과업의 완수를 위해 특히 중요한 일은 창조심의 발전을 위한 교육, 바로 창의성교육이었다 (小西重直, 1940 : 14).

『조선일보』의 특집에서 박종홍이 현대가 요구하는 신윤리라며 발표한 〈결단의 시대 : 전환기를 뚫고 나가는 힘〉<sup>56)</sup>에 대해, 그 내심을 읽어내기 위한 당대연구의 심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박종홍이 “현대=신윤리=결단=전환기=뚫고나가는 힘”을 말한 것은 1940년대 총독부 특히 학무국의 지향을 그대로 표상한 것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1940년은 진무천황이 새 터전[大和の國 橿原の地]에 건국한 지 2600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당시의 어법과 수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만 군국주의로도포된 철학·사상·교육의 문제를 해명할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은 신체제 건설을 목표로 내걸면서 수행된 전쟁(總力戰, 綜合戰)의 성격을 알아야

56) 1940년을 전후하여 일제강점자들은 더욱 구미의 개인주의사상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고, 국체의 존엄을 관념으로 터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봉사를 제일로 삼는 신민의 도를 강조하였다. 문부성 교학국에서 펴낸 『신민의 도』에서도 제1장(세계신질서의 건설)에서는 “1. 세계사의 전환, 2. 신질서의 건설, 3. 국방국가체제의 확립”을 말하였다. 박종홍의 신윤리=전환기를 뚫고나가는 힘은 사실상 대일본제국의 신민의 도라는 자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자 그 틀에 갇힌 신윤리일 수밖에 없었다. 文部省教学局, 『臣民の道』, 文部省教学局, 1941 참조.

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총독부 학무국의 국책과제는 전쟁을 통한 건국의 대이상 실현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수사법에 의하면 전쟁과 파괴의 언어 대신에 그 자리를 분칠한 것은 바로 평화와 건설의 언어였다 (<표 1> 참조).

<표 1> 『문교의 조선』 1940년 당시의 교육목표 관련 핵심어

교육목표 관련 핵심어	출처
신동아 건설[新東亞の建設]	鹽原時三郎, 1940, 6쪽 野中齋之助, 1940, 38쪽
신동아 건설 사업[新東亞建設の事業]	速水湜, 1940, 15쪽
동아신질서 건설[東亞新秩序の建設]	速水湜, 1940, 15쪽 野中齋之助, 1940, 38쪽
신동아 건설의 성업[新東亞建設の聖業]	川島義之, 1940, 18쪽
팔굉일우의 천업[八紘一宇の天業]	鹽原時三郎, 1940, 6쪽
지금이야말로 동아의 천지에 팔굉일우적인 아마토적 신질서를 건설 [今や東亞の天地に八紘一宇的な大和的新秩序を建設]	小西重直, 1940, 12쪽
역사적 대전환기[歴史的大轉換期]	川島義之, 1940, 19쪽
전세계를 뒤덮는 세계사적 전환기[全世界を蔽ふ世界史的の轉換期]	近衛文鷹, 1940, 10쪽
제국의 중책= 국민자질의 순화향상[帝國の重策=國民資質の醇化向上]	野中齋之助, 1940, 38쪽
국가총동원 하의 시국[國家總動員下の時局]	川島義之, 1940, 19쪽
영광스러운 임무에 감분흥기[光榮ある任務に感奮興起]	川島義之, 1940, 19쪽
반도인 지원병제도의 실시[半島人志願兵制度の實施]	野中齋之助, 1940, 38쪽
전선에서 산화하는 순국의 영령=사람들의 사표 [戰線に散華せる殉國の英靈=人の師表]	川島義之, 1940, 19쪽

일제 강점자들은 총력전·종합전의 승리를 위해 국가(대일본제국)-국민(대동아민족)의 총동원체제 및 신체제의 혁신운동을 강력 실천하였다.<sup>57)</sup> 체제 혁신을 외친 당대의 체제 협력자들이 그렇듯이 박종홍은 인류 생활이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세계사적 전환을 꿈꾸면서 그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멸사봉공하는 국민적 자세를 촉구하였다.<sup>58)</sup> 문제는 박종홍이 1934~35년 이래 강조했던 ‘우리’와 ‘현실’이 ‘대일본제국’의 ‘일본인’으로 살아야 했던 박종홍에게 과연 어떤 대상을 상정한 어법이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근대적으로 변형된 박종홍의 유교윤리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당대의 지배 권력에 대해 철저히 비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박종홍은 민족과 국적을 불문하고 어떤 지배 권력이든 그 권력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한 채 자신의 유교윤리를 그 권력에 복속시켰다.<sup>59)</sup> 퇴계의 경설(경의 철학)은 망국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최선의 방도를 찾자는 『중용』의 논리와도 연계되었다. 이는 분명 민족구성원의 독립투쟁을 가로막는 일이기도 했다.<sup>60)</sup>

박종홍은 “현실과악의 길! 그것은 일상적 현실이 구체적 실천을 매개로 자각하는 과정이요, 문화의 창조를 위한 투쟁이요, 국가의 건설을 위한 성전이다”고 하였다.<sup>61)</sup> 박종홍은 결단의 윤리를 말하면서 이를

57) 조관자, 『세계사의 가능성과 나의 운명 : 서인식의 역사철학과 교토학과』, 『일본연구』 9, 2008, 45쪽.

58) 『매일신보』 1940년 11월 20일; 조관자, 『세계사의 가능성과 나의 운명 : 서인식의 역사철학과 교토학과』, 『일본연구』 9, 2008, 45쪽에서 재인용.

59) 김원열·문성원, 「유교 윤리의 근대적 변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박종홍(1903~1976)의 유교 윤리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17(1), 2006, 101-132쪽.

60) 박균섭, 「전시동원체제와 퇴계학 : 아베 요시오와 박종홍의 연속성」, 『교육철학연구』 36(4), 2014, 121-141쪽.

“최후 긴장된 일순간의 태도”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새로운 실천으로 일보를 내디디는 찰나의 태도”라고 부연하기도 하였다.<sup>62)</sup> 하지만 철학 없는 그 시대에, 전쟁관국에서 내놓은 박종홍의 결단의 윤리는 수상쩍은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사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로막고 판단과 책임을 방해하는 맹목성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시대 이래 배태된 박종홍의 철학은 태생적으로 기존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학문태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박종홍은 충량한 황국신민을 양성한다는 식민교육의 목적을 전파하는 모범생이었다.<sup>63)</sup> 박종홍은 민족 말살의 식민지 현실에서 결단의 시대, 신윤리, 전환기를 뚫고 나가는 힘을 말하면서도 민족의 독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sup>64)</sup> 일각에

61) 박종홍, 『현실파악』, 『박종홍전집(I)』, 서울 : 민음사, 1939, 432쪽. 박종홍의 “현실파악=구체적 실천=자각하는 과정=문화의 창조=투쟁=국가의 건설=성전” 그리고 “현대=신윤리=결단=전환기=뚫고 나가는 힘”은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교육에 대한 지침 및 기조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박종홍의 언명은 1940년 당시 총독부학무국의 교육관으로 제시되는 “일본의 역사에서 일대 비약적 의의를 갖는 금번의 지나사변은 聖戰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는 실로 도의 구현이다. ……(이는) 동아에 야마토[大和]의 신질서를 건설하는 聖業의 실행 실천이다. ……창조심의 발전을 위한 교육은 실은 일본 고유의 일본정신에 입각한 교육이다”는 규정과 만날 때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 小西重直, 『國史の特色と教育の使命』, 『文教の朝鮮』 1940년 2월호, 13-14쪽. 학도와 성전을 연결짓는 선전방식의 연속성 사례로는 당시 보성전문학교장 김성수의 글을 들 수 있다. 金性洙, 『先輩의附託④ : 文弱의痼疾을버리고尙武氣風助長하라』, 『每日申報』 1943년 8월 5일 ; 金性洙, 『學徒여聖戰에나서라③ : 大義에죽을씨대皇民됨의責務는크다』, 『每日申報』 1943년 11월 7일 참조.

62) 박종홍, 『현실파악』, 『박종홍전집(I)』, 서울 : 민음사, 1939, 425-432쪽 ; 박종홍, 『현대가 요구하는 신윤리 : <결단>의 시대—전환기를 뚫고 나가는 힘』, 『박종홍전집(I)』, 서울 : 민음사, 1940, 422-423쪽.

63) 양재혁, 「근대 백년 논쟁의 사람들 : (8) 박종홍」, 『교수신문』 2010년 9월 13일.

64) 위의 글.

서는 박종홍의 퇴계연구(1928)에 대해 왜 하필 퇴계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했는지를 분석하면서, 오늘날의 중등학교교사(에 해당하는 교유) 지위의 박종홍이 조선 주자학을 대표하는 퇴계를 연구했다는 것은 조선 시대로 대표되는 조선인의 정체성-열등성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임을 말하였다.<sup>65)</sup> 박종홍의 퇴계 연구는 그야말로 조속한 연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선의 우수성을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sup>66)</sup>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일각에서 박종홍을 친일적인 황도 유학의 표본인 것처럼 비난하는 일은 사후적 읽기의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폭력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sup>67)</sup> 이처럼 박종홍을 황도 유학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근거로, 박종홍의 조속한 퇴계 연구가 사상사적으로 퇴계학의 핵심을 천착했다는 사실과 박종홍은 황도유학을 표방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내내 서양철학의 세계에 침잠했다는 사실을 들기도 한다.<sup>68)</sup> 하지만 박종홍의 연구궤적을 들여다보면, 그가 퇴계학의 핵심을 천착했다거나 황도유학이 아닌 서양철학에 침잠했다고 규정짓기는 어렵다.

박종홍의 철학·사상은 해방 전·후의 연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박종홍은 식민교육 장면에 대해 노골적인 연표를 구사하지 않았던 관계로, 해방 이전의 박종홍의 연구이력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박종홍은 1959년과 1960년에는 퇴

65) 이황직, 「한국 민족주의의 재현 양상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연구 : 일제강점기 박종홍과 함석헌의 저술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8, 2010, 106-107쪽.

66) 위의 글, 107쪽.

67) 위의 글, 107쪽.

68) 위의 글, 107쪽.

계를 우리 민족 도의의 사표로 집중 조명하였다.<sup>69)</sup> 이는 다카하시 도루와 아베 요시오의 영향을 받아 종합된 퇴계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 주장과 표현에 묻어나는 논조로 보면 다카하시 도루보다는 아베 요시오의 영향을 짙게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박종홍이 대일 본제국의 전쟁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조선의 독립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데 있다. 그러면서도 박종홍은 퇴계를 주체어로 삼아 경의 철학과 도의의 사표를 역설했다. 그의 사상세계는 여전히 일제 강점기의 사상적 자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1970년 10월 20일 서울 남산에 동상(〈퇴계이황선생상〉)이 건립되었다. 〈퇴계이황선생상〉의 건립위원장 박종홍은 동상 뒷면에서 “선생은 경상도 안동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돌아가셨건만(1501~1570) 멀리 일본의 선비들마저 선생을 신명같이 존송하여 명치시대에까지 정신적 길잡이로 받들었다. 선생은 동방의 빛이요 길이 우리러 본받을 스승이시다”고 하였다.<sup>70)</sup> 여기에는 다카하시 도루와 아베 요시오의 퇴계론이 취사선택되면서 한국사상의 우수성을 설파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 12월 20일에는 서울에 퇴계학연구원이 설립되었다. 1972년 7월에는 동경에 이퇴계연구회가 설립되었다.<sup>71)</sup> 1973년 7월에는 경북대

69) 박종홍, 「우리사표 이퇴계선생(상)」, 『지방행정』 8권 75호, 1959, 227-234쪽 ; 박종홍, 「우리사표 이퇴계선생(중)」, 『지방행정』 8권 76호, 1959, 228-234쪽 ; 박종홍, 「우리사표 이퇴계선생(하)」, 『지방행정』 9권 77호, 1960, 271-275쪽.

70) 박종홍, 「이퇴계 동상명문」, 『박종홍전집(VII)』, 서울 : 민음사, 1970, 135쪽.

71) 우노 세이이치는 이퇴계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숨은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우노 세이이치에 의하면 “지금부터 10여년 전, 한국계 일본인 金容基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1930년경에 왕인박사의 송덕기념비를 우에노공원의 일각에 건립할 즈

학교 퇴계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박종홍은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의 학술지 『한국의 철학』의 창간호(1973.10)에 대한 축사를 남겼다.<sup>72)</sup> 박종홍은 일본에 이퇴계연구회가 있음을 의식하면서 “경북대학교의 퇴계연구소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특정인의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을 둔 것은 아마도 효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sup>73)</sup> 박종홍은 퇴계학연구원의 학술지 『퇴계학보』의 창간호(1973.10)에 대한 창간사에서 일본보다 못한 우리의 퇴계에 대한 무관심을 부끄럽다고 말했다.<sup>74)</sup> 박종홍은 “교육입국=국적 있는 교육=한국교육의 이념”은 국민교육헌장에 제시되어있음을 강조하면서, 국민교육헌장의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살리고 가꾸어나가기 위해서도 퇴계의 교학사상을 널리 보급하자고 역설했다.<sup>75)</sup>

---

음에 당시의 일본 학자들을 설득하여 실현시킨 인물이었다. …… 전기한 김씨는 왕인박사의 비석 건립시에 지면이 있던 필자의 부친(宇野哲人)을 찾아와(왕인박사 비 건립 때 관계한 학자들은 모두 사망하고 생존학자는 부친뿐이었다) 왕인박사에 필적할 이퇴계는 일본문화의 제2의 은인이므로 그 기념비를 왕인박사 비석과 나란히 건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친은 그때 이미 90여세의 고령이었으므로 그 무렵, 이퇴계 연구가로서 거의 일본에서 유일하다 할 아베 요시오(1905~1978) 박사와 상담한 결과 비석을 세우기보다는 학문적으로 현창할 일이라 하여 이퇴계연구회가 창립된 것이 1972년이였다. …… 이퇴계연구회의 초대회장은 필자의 부친 우노 데즈도[宇野哲人]였으나 부친의 사후(1974) 아베 요시오 박사가 회장이 되었고 1978년에 세상을 떠난 후로는 필자[宇野精一]가 3대 제의 회장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술회하였다(宇野精一, 『일본에 있어서의 이퇴계 연구 소사』, 『퇴계학보』 44, 1984, 470-471쪽). [번역문의 일부는 연구자에 의해 표기를 달리함]

72) 박종홍,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간, 『한국의 철학』 창간호 축사」, 『박종홍전집(VII)』, 서울 : 민음사, 1973, 198-199쪽.

73) 박종홍, 「『퇴계학보』 제3집 권두사」, 『박종홍전집(VII)』, 서울 : 민음사, 1974, 191-192쪽.

74) 박종홍, 「퇴계학연구원 간, 『퇴계학보』 창간사」, 『박종홍전집(VII)』, 서울 : 민음사, 1973, 186-190쪽.

75) 박종홍, 「『한국교육이념의 탐구』의 서문—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간」, 『박종홍전집(VII)』, 서울 : 민음사, 1973, 213-216쪽.

1976년 5월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1976.5.18-20)에서 당시 일본의 이퇴계연구회장 아베 요시오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아베 요시오는 1976년 5월 22일에 유기춘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경성제국대학을 거점으로 도의담론을 펼쳤던 아베 요시오는 전쟁 후에도 퇴계를 정점으로 한 도의담론을 유포했고 이는 여전히 주효했다. 그 배경에는 다카하시 도루나 아베 요시오의 한국유학사상·퇴계연구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아온 제1세대 한국철학 연구자 및 제1세대 한국교육학 연구자들이 있었다. 과연 다카하시 도루나 아베 요시오를 디딤돌로 삼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독수독과론을 통해 설명할 수도 있겠다. 악의 뿌리에서 자란 나무의 꽃과 열매는 아름다울 수 없다. 그렇다면 박종홍의 한탄처럼 일본보다 못한 우리의 퇴계에 대한 무관심을 부끄럽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지 말아야 할 일본의 퇴계연구를 무비판적으로 흡수했던 우리의 학문태도를 부끄럽게 여기는 게 마땅한 일이다. 진정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아는 자야말로 부끄러움을 말할 자격이 있다.

## 5. 맺음말

일제강점기의 퇴계 연구는 다카하시 도루와 아베 요시오의 연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해방이후의 퇴계연구로서 다카하시 스스무의 연구도 중요한 성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sup>76)</sup> 다카하시 도루의 퇴계연구는

76) 高橋進, 『李退溪と敬の哲學』, 東京: 東洋書院, 1985.

그의 연구 이력에서 뒤늦게 시작된 것으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베 요시오의 전파론은 퇴계사상이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사상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으로 한국인으로부터 특히 환영받는 관점이다. 다카하시 스스무의 철학적 평가는 퇴계사상이 철학적 완성도가 높은 사상체계라는 분석이어서 이 역시 한국의 학계에서는 환영받는 관점이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말하자면, 메이지시대 이래 퇴계의 재발견이 이루어지면서 전전·전중·전후의 구분 없이 퇴계 평가는 (a)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과학적으로 높이 평가되었고, (b)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주자보다 높이 평가되었다.<sup>77)</sup> 퇴계의 철학·사상은 (1) 경의 철학, (2) (기대승과의) 사단칠정논쟁, 그리고 (3) (『심경』을 중심으로 하는) 심학 등으로 짜여져 있다. 그동안 일본의 퇴계 연구는 (1)>(2)>(3)의 관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사실상 (3)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퇴계학의 완전성을 놓고 볼 때, 퇴계철학의 근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심학세계가 무관심의 영역으로 방치된 셈이다.<sup>78)</sup> 퇴계학 연구영역으로 성인관의 이해, 사단칠정과 이기호발의 윤리적 의미의 이해, 경의 이해와 실천, 지행병진의 이해와 실천, 자신의 인격 형성 관점과 퇴계의 관점 비교 성찰 및 모색 등을 들기도 한다.<sup>79)</sup> 핵심은 퇴계 연구 및 퇴계학의 구성 과정에서 전체적인 구성을 제대로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식민체제와 분단체제를 거치면서 각각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의 요소와 가치

77) 井上厚史, 「近代日本における李退溪研究の系譜學: 阿部吉雄・高橋進の學說の檢討を中心に」, 『總合政策論叢』 18, 2010, 79쪽.

78) 위의 글, 73쪽.

79) 이영경, 「고등학교 윤리교육에서 퇴계사상의 내용 구성 방향과 수업 방략 탐색」, 『윤리교육연구』 22, 2010, 109-130쪽.

만을 뽑아서 논하는 현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일본발 퇴계학 연구를 대하는 통념적 반응과 해석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전통사상과 문화에 대해 무관심한 반면 오히려 이웃나라 일본에서 우리의 전통사상에서 가르침을 구하려 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과 훈계로 넘쳐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일본 관제·관변 학자들의 퇴계연구는 본연의 관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시동원체제의 강행과 황국신민 교육론의 실천을 위한 그들의 욕망 채우기의 일환이었다. 발설의 맥락을 간과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지적이나 훈계는 진정한 가르침이 될 수가 없음에도 이러한 부류의 지적과 훈계는 여전히 넘쳐난다.

일제강점기, 그것도 태평양전쟁의 와중에서 퇴계를 호명·소환·이용하는 방식의 철학을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는 진정한 철학이 될 수 없다. 권력의 편에 서서 말하는 자들은 이를 분명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철학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철학 없는 시대, 전쟁과 파멸의 시대에 조립된 전쟁인문학에 불과한 것이다. 퇴계를 앞세워 도의입국-문교보국을 강조하면서 전쟁과 죽음을 추동하는 세력을 일컬어 진정한 퇴계학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카하시 도루와 아베 요시오라는 걸림돌·장애물을 넘지 못한다면 퇴계(학)에 대한 정확한 모습, 그 본질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 전쟁과 파멸의 시대에 내선일체, 충군애국, 도의입국을 외치는 근거로 호명된 퇴계는 우리가 알아야 할 퇴계가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퇴계라는 텍스트,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서 퇴계학을 제대로 탐구하는 가열찬 공부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왜곡·굴절·질곡의 시대를 거치면서 소위 퇴계 연구자들에 의해 잘못 생성되고 유포된 퇴계학의 거

품과 허상을 걷어내야만 진정한 퇴계의 공부론, 퇴계학의 본연을 만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재철·홍성남·최인학 편, 『퇴계선생실화』, 서울 : nosvos, 2011.
- 강해수, 「근대 일본의 이퇴계 연구」, 『퇴계학논집』 2, 2008, 55-83쪽.
- 강해수, 「해방후·전후의 도의 담론과 이퇴계 : <도의를 제국>론의 사정」, 『퇴계학논총』 15, 2009, 79-96쪽.
- 강해수, 「황도유학과 도의 담론, 그리고 식민지조선」, 『한국학연구』 28, 2012, 1-36쪽.
- 강해수, 「제2의 와니(壬仁)로서의 이퇴계상과 도의담론 : 근현대 한일 양국의 이퇴계연구를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49, 2015, 93-121쪽.
- 권인호, 「高橋亨의 皇道儒學 : 李滉, 高橋亨, 朴鍾鴻의 주자성리학과 중앙집권·국가주의 비판」, 『대동철학』 55, 2011, 1-24쪽.
- 김경호, 「탈식민과 한국유교 : 식민지 근대성의 그늘, 너머」, 『유교사상문화연구』 62, 2015, 91-124쪽.
- 김기주,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관을 다시 논함」, 『퇴계학보』 132, 2012, 275-307쪽.
- 金性洙, 「先輩의附託④ : 文弱의痼疾을버리고尙武氣風助長하라」, 『每日申報』 1943年 8月 5日.
- 金性洙, 「學徒어聖戰에나서라③ : 大義에죽을시대皇民됨의責務는크다」, 『每日申報』 1943年 11月 7日.
- 김언중, 「퇴계의 행적과 일화의 여러 양상」, 『퇴계학보』 138, 2015, 107-157쪽.
- 김원열·문성원, 「유교 윤리의 근대적 변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박종홍(1903~1976)의 유교 윤리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17(1), 2006, 101-132쪽.

- 박근섭, 「교육척어체제의 지속과 한국교육의 실패」, 『일본학보』 51, 2002, 439-454쪽.
- 박근섭, 「유교사상의 일본적 변형 : 충효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답사자료집(2004. 2. 18. 서울교육대학교), 25-35쪽.
- 박근섭, 「왕인 관련 사료와 전승 검토 : 식민 교육과 주체성 교육 문제」, 『한국교육사학』 34(2), 2012, 25-48쪽.
- 박근섭, 「전시동원체제와 퇴계학 : 아베 요시오와 박종홍의 연속성」, 『교육철학연구』 36(4), 2014, 121-141쪽.
- 박종홍, 「퇴계의 교육사상」, 『박종홍전집(I)』, 서울 : 민음사, 1928, 125-158쪽.
- 박종홍, 「현실파악」, 『박종홍전집(I)』, 서울 : 민음사, 1939, 425-432쪽.
- 박종홍, 「현대가 요구하는 신윤리 : <결단>의 시대—전환기를 뚫고 나가는 힘」, 『박종홍전집(I)』, 서울 : 민음사, 1940, 422-423쪽.
- 박종홍, 「우리사표 이퇴계선생(상)」, 『지방행정』 8권 75호, 1959, 227-234쪽.
- 박종홍, 「우리사표 이퇴계선생(중)」, 『지방행정』 8권 76호, 1959, 228-234쪽.
- 박종홍, 「우리사표 이퇴계선생(하)」, 『지방행정』 9권 77호, 1960, 271-275쪽.
- 박종홍, 「이퇴계론 : 경으로 일관된 생애와 사상」, 『박종홍전집(IV)』, 서울 : 민음사, 1963, 357-389쪽.
- 박종홍, 「이퇴계 동상명문」, 『박종홍전집(VII)』, 서울 : 민음사, 1970, 135쪽.
- 박종홍, 「『한국교육이념의 탐구』의 서문—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간」, 『박종홍전집(VII)』, 서울 : 민음사, 1973, 213-216쪽.
- 박종홍,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간」, 『한국의 철학』 창간호 축사, 『박종홍전집(VII)』, 서울 : 민음사, 1973, 198-199쪽.
- 박종홍, 「퇴계학연구원 간」, 『퇴계학보』 창간사, 『박종홍전집(VII)』, 서울 : 민음사, 1973, 186-190.
- 박종홍, 「『퇴계학보』 제3집 권두사」, 『박종홍전집(VII)』, 서울 : 민음사, 1974, 191-192쪽.
- 소광희, 「열암 박종홍의 생애와 사상」, 『서울대학교대학원동창회보』 17, 2011, 9-14쪽.
- 양재혁, 「근대 백년 논쟁의 사람들 : (8) 박종홍」, 『교수신문』 2010년 9월 13일.

- 이동희,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조 주자학 연구의 허와 실 : 오늘날 철학적 관점에  
서의 비판적 고찰」, 『한국학논집』 60, 2015, 203-240쪽.
- 이영경, 「고등학교 윤리교육에서 퇴계사상의 내용 구성 방향과 수업 방략 탐색」, 『윤  
리교육연구』 22, 2010, 109-130쪽.
- 이항직, 「한국 민족주의의 재현 양상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연구 : 일제강점기 박종  
홍과 함석헌의 저술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8, 2010, 83-127쪽.
- 정석태, 「퇴계 이항 이야기의 서사화 양상 : 단양의 기생 두향과 풍기의 대장장이  
배순 관련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37, 2010, 109-138쪽.
- 조관자, 「세계사의 가능성과 나의 운명 : 서인식의 역사철학과 교토학과」, 『일본연  
구』 9, 2008, 43-71쪽.
- 최광승,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의 애국적 국민 생산 프로젝트 : 화랑도와 화랑교  
육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 2014, 237-275쪽.
- 최재목 · 김정곤, 「구도 다케키의 의학과 황도유교에 관한 고찰」, 『의사학』 51,  
2015, 659-708쪽.
- 한미라, 「일제의 식민정책과 향약 인식 : 192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9,  
2015, 59-86쪽.
- 한미옥, 「설화의 정치성과 전승전략 : 도선설화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27,  
2013, 257-283쪽.
- 한형조, 「주기 개념의 딜레마, 그리고 실학과의 불화」, 『다산학』 18, 2011, 307-  
335쪽.
- 權純哲, 「退溪哲學研究の植民地近代性 : 韓國思想史再考Ⅱ」, 『日本アジア研究』 3, 2006,  
59-98쪽.
- 金廣植, 「高橋亨の『朝鮮の物語集』における朝鮮人論に關する研究」, 『學校教育學研究論  
集』 24, 2011, 13-28쪽.
- 金聲律, 「退溪學說の一斑としての自省録」, 『文教の朝鮮』 1934年 2月號, 84-91쪽
- 安寅植, 「教育家の奮起を望む」, 『文教の朝鮮』 1930年 10月號, 61-63쪽.
- 李東基, 「半島理學の祖 李退溪の思想一斑」, 『文教の朝鮮』 1932年 1月號, 87-91쪽.
- 李曉辰, 「高橋亨の韓国学研究 : 儒學 · 仏敎 · 文學研究を中心に」, 『退溪學論集』 12,

2013, 161-196쪽.

李曉辰, 「京城帝國大學における朝鮮儒學研究: 高橋亨と藤塚鄰を中心に」, 『退溪學論集』 14, 2014, 291-315쪽.

阿部吉雄, 『李退溪(日本教育先哲叢書)』, 東京: 文教書院, 1944.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5.

阿部吉雄, 「序」, 李退溪研究會, 『日本刻版李退溪全集(上)』, 서울: 退溪學研究院, 1975.

阿部吉雄, 『李退溪: その行動と思想(東洋人の行動と思想 11)』, 東京: 評論社, 1977. 김 석근 역, 『퇴계와 일본유학』, 서울: 전통과 현대, 1998.

阿部吉雄, 「일본의 충효론」, 『퇴계학보』 15, 1977, 94-100쪽.

阿部吉雄, 「李退溪の史的地位と日本儒學との異質性」, 『李退溪研究會々報』 4, 1978, 37-52쪽.

渭川健三, 『日本と朝鮮における朱子學』, 京都: 同朋社出版, 1988.

稻葉溪雄, 『舊韓國~朝鮮の日本人教員』, 福岡: 九州大學出版會, 2001.

井上厚史, 「韓國近代儒教改革運動における近代的思惟の形成: 西洋・中國・日本の果たした役割」, 『北東アジア研究』 10, 2006, 67-93쪽.

井上厚史, 「近代日本における李退溪研究の系譜學: 阿部吉雄・高橋進の學說の検討を中心に」, 『總合政策論叢』 18, 2010, 61-83쪽.

井上厚史, 「李退溪の敬說と山崎闇齋の敬說」, 『南道文化研究』 20, 2011, 131-174쪽.

宇野精一, 「일본에 있어서의 이퇴계 연구 소사」, 『퇴계학보』 44, 1984, 467-479쪽.

大山一夫, 「教育勅語渙發四十年を迎へて」, 『文教の朝鮮』 1930年 10月號, 87-94쪽.

岡井愼吾, 「教育勅語渙發當時の事ども」, 『斯文』 21(12), 1939, 23-25쪽.

奥田槐堂, 「李退溪の學統と日本思想界に及ぼせる影響」, 『東洋之光』 1939年 2月號, 41-47쪽.

川島義之, 「全鮮教育者諸兄に望む」, 『文教の朝鮮』 1940年 2月號, 18-19쪽.

喜田新六・高橋亨, 『國體明鑑』, 京城: 朝鮮儒道聯合會, 1944.

小西重直, 「國史の特色と教育の使命」, 『文教の朝鮮』 1940年 2月號, 12-14쪽.

近衛文麿, 「紀元二千六百年を祝ぎ奉りて」, 『文教の朝鮮』 1940年 2月號, 7-11쪽.

鹽谷溫, 「明治天皇の聖德鴻業を仰ぎ奉りて」, 『斯文』 21(12), 1939, 1-11쪽.

- 鹽原時三郎, 「皇紀二千六百年の紀元節を迎へて」, 『文教の朝鮮』 1940年 2月號, 5-7쪽.
- 高田誠二・藤原一毅, 『日本の教育精神と李退溪(附李栗谷の擊蒙要訣と時事)』, 京城: 朝鮮事情協會出版部, 1934.
- 高橋進, 『李退溪と敬の哲學』, 東京: 東洋書院, 1985.
- 高橋亨, 『朝鮮の物語集附俚諺』, 1910, 이시준・장경남・김광식 편, 『조선이야기집과 속담』, 서울: 제이앤씨.
- 高橋亨, 「經學史上の雲養集」, 『毎日申報』 1915年 5月 18日.
- 高橋亨, 『朝鮮人』, 京城: 朝鮮總督府學務局. 구인모 역,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高橋亨, 「朝鮮に於ける儒敎」, 『斯文』 5(2), 1923, 9-19쪽.
- 高橋亨, 「吾人は學生に斯く希望す」, 『文教の朝鮮(京城帝國大學開學記念号)』 1926年 6月號, 21-22쪽.
- 高橋亨, 「王道儒道より皇道儒道へ」, 『朝鮮』 295, 1939, 10-28쪽.
- 高橋亨, 「李退溪」, 『斯文』 21(11), 1939, 1-32쪽.
- 高橋亨, 「李退溪(二)」, 『斯文』 21(12), 1939, 12-22쪽.
- 高橋亨, 「李退溪(三)」, 『斯文』 22(1), 1940, 34-43쪽.
- 高橋亨, 「李退溪(四)」, 『斯文』 22(2), 1940, 6-19쪽.
- 高橋亨, 「李退溪(五)」, 『斯文』 22(3), 1940, 7-27쪽.
- 高橋亨, 「序」, 喜田新六・高橋亨, 『國體明鑑』, 京城: 朝鮮儒道聯合會, 1944.
- 友枝龍太郎, 「인륜의 도로서의 충과 효」, 『퇴계학보』 15, 1977, 111-117쪽.
- 友枝龍太郎, 『李退溪: 그의生涯と思想』, 서울: 退溪學研究院, 1985.
- 中村雄二郎, 『日本の思想界: 戦前・戦中・戦後』, 東京: 勁草書房, 1967.
- 野中齋之助, 「紀元二千六百年を迎へて若き教育者に寄する」, 『文教の朝鮮』 1940年 2月號, 33-40쪽.
- 服部宇之吉, 「京城帝國大學始業式に於ける總長訓辭」, 『文教の朝鮮(京城帝國大學開學記念号)』 1926年 6月號, 3-7쪽.
- 速水澂, 「日本文化の大陸進出」, 『文教の朝鮮』 1940年 2月號, 14-18쪽.
- 平山正, 「教育勅語渙發四十年を迎へて所感を述ぶ」, 『文教の朝鮮』 1930年 10月號, 79-

86쪽.

- 松田甲, 『日鮮史話 第六編(李退溪歿後三百六十年記念)』, 京城: 朝鮮總督府, 1930.
- 松田甲, 「教育に關する勅語と李退溪」, 『文教の朝鮮』 1935年 10月號, 97-106쪽.
- 柳生眞, 「日本における退溪・栗谷・茶山研究の流れ: 日本における韓國儒學言説を再檢討する」, 『退溪學論集』 10, 2012, 278-305쪽.
- 慶北・大邱・慶北公立高等女學校, 「內鮮一體精神 新羅武士道」, 『文教の朝鮮』 1940年 2月號, 20-25쪽.
- 斯文會, 「大塚先儒祭」, 『斯文』 21(12), 1939, 84-85쪽.
- 朝鮮總督府學務局內朝鮮教育會, 「口繪: 京城帝國大學總長及幹部(寫眞版)」, 『文教の朝鮮 (京城帝國大學開學記念號)』 1926年 6月號, xxii쪽.
- 朝鮮總督府學務局內朝鮮教育會, 「『日本の教育精神と李退溪』に對する諸方面の反響」, 『文教の朝鮮』 1935年 3月號, 195-197쪽.
- 文部省教学局, 『臣民の道』, 文部省教学局, 1941.

Abstract

### Misreading of Toegye Studies : Criticism on Toegye Studies of Takahashi Toru and Abe Yoshio

Park, Kyoon-Seop

Takahashi Toru and Abe Yoshio can be the government sources scholars of Japan who are representatives of researching Toegye. They pay attention Toegye to achieve their colonial education aim with easy and they take advantage of Toegye to pass down the ideology of emperor system effectively since the Meiji Restoration. Korean Confucianism and Toegye Studies researchers uncritically accept two of their research results after the Liberation. A story that has been passed on orally related Toegye practical use for commercial humanities material which put up Toegye for main character with culture products since Chosun dynasty. Warfare humanities stir up young people of Korea to war field and also claim "Korea and Japan are One" policy and training for colony using Toegye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It makes devalue the identity of Toegye Studies in the research process of Korean Confucianism after the Liberation. We must secure intellectual probity and research capacity of Toegye Studies in order that we have to put away colonial relics for regaining original characteristics of Toegye Studies which is polluted and distorted by commercial humanities and warfare humanities.

#### Key Word

Takahashi Toru, Abe Yoshio, Toegye Studies, commercial humanities, warfare humanities

▪ 논문투고일 : 2016.7.1. 심사완료일 : 2016.8.14. 게재결정일 : 2016.8.17.